

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조승*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Vancouver
파견대학	Langara College	기간	2017. 8. 6(일) ~ 8. 27(일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랑가라 대학은 집에서 멀지도 않고 버스정류장과 스카이트레인역이 근처에 있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위치에 있다. 또한 매우 크고 독특하게 생겼으며 시설들도 매우 깨끗하고 오래된 느낌은 없었다.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 있고 모두들 친절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첫 날 리스닝테스트를 통해 분반을 한다. 하지만 반의 레벨에는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다. 분반을 통해 한 반당 15명 정도 수용하는 것 같다. 선생님도 매우 좋았고, 교재는 파일철로 되어있다. 숙제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매일 쓰는 일기 같은 책이 있다.</p>
Activity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</p> <p>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/p> <p>우리는 밴쿠버 뮤지엄, 아쿠아리움, 휘슬러트립, 카약 그리고 밴쿠버 트립을 갔다. 멀리 가는 카약이나 휘슬러는 시간이 꽤 걸린다. 그 외는 밴쿠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날씨가 매우 선선해서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다. 주로 등교할 때는 가디건을 입고 학교생활을 했다. 바람이 불지만, 오후 1~2시가 되면 해가 너무 쨍쨍해서 더워진다. 선글라스는 필수다. 비는 혹시 몰라서 우산을 챙긴 했지만 온다는 예정인 날은 있었지만, 사용한 적은 없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치안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, 홈리스들이 많고 다운타운에서도 위험한 거리에 가면 위험하다. 너무 늦은 시간에는 매우 어둡고 거리에 사람들도 없어서 분위기가 무섭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o) 외부 숙소() 기타()</p> <p>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각 방을 썼고, 홈메이트는 일본인 학생이었다. 홈메이트가 있어서 더 재미있게 생활했던 것 같다. 홈스테이 가족들은 은퇴하신 할머니, 할아버지 부부라서 아침, 점심, 저녁을 손수 챙겨주셨다. 메뉴도 맨날 같지 않아서 매우 좋았다. 다만 방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어서 밤에 좀 덥기도 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) 홈스테이 () 외부식당 (o)기타(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싸준 점심을 먹었다. 저녁을 집에서 먹거나 놀다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밖에서도 많이 사 먹었다.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학교까지는 버스타고 다녔다. 한 20분 정도의 거리였다. 버스나 스카인트레인은 한국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. 다운타운 쪽은 좀 복잡해도 매우 심플한 편이다. 구글맵을 항상 사용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1,755,000	출국 전 사전 납부
여행자보험	31,966원	출국 전 사전 납부
음식	305,197	외식, 디저트
쇼핑	100,911	기념품, 화장품
기타	49,189	버스, 페리 값
합계	464,297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.

날씨에 대비해 우산을 챙기고, 햇빛이 매우 쨍쨍해서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꼭 챙겨야한다. 우리나라 여름과 다르기 때문에, 너무 한국 여름 같은 옷만 챙기는 것보다는 여름날씨 가을날씨 반반으로 챙겨야한다.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울 수 있으니 컵라면이나 핫반 등을 챙겼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캐나다에 처음 방문했는데,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마지막주에는 한국에 오는게 너무 아쉬웠다. 학교생활도 너무 재미있었고 수업 끝나고 함께 놀러다닌 것도 너무 좋았다. 적응될 쯤에 돌아와서 너무 아쉽지만, 캐나다에서 내 영어실력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3주가 영어실력을 늘리기엔 짧은 시간이지만, 내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기회를 할 수 있었기에 잊지 못 할 경험을 한 것 같다. 한국에서 내 영어실력을 더 늘려서 기회가 된다면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싶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캐나다 150주년 기념장소</p>	<p>파크 주변에서</p>
	
<p>잉글리시베이</p>	<p>퀸 엘리자베스 파크</p>
	
<p>빅토리아 아일랜드</p>	<p>휘슬러</p>